

전후세대 문학에 나타난 저항의 양상 - 손창섭, 서기원, 송병수를 중심으로-

이은선, 이서진, 박은주

I. 들어가며

이재선의 지적과 같이 1950년대는 한마디로 지적해서 인위적인 재난인 전쟁의 시대인 동시에 전쟁체험과 전후의 분위기가 편재화하는 수난의 시대였다¹⁾. 민족과 이념의 갈등이 낳은 전쟁은 충격이자 공포였고 당대의 사회 전반에 걸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문학계에서 역시 6·25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전후세대 작가들의 등장은 주목할 만하다. 신세대 작가 혹은 종종 1920년대산(産) 작가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거의 비슷한 시대를 거쳐 성장한다. 일제 식민지 체제 아래서 태어나 소년기를 지내면서 해방을 맞았고, 청춘을 전쟁 속에서 보낸 후 모든 가치 개념이 붕괴되고,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폐허의 현실에 직면한 세대인 것이다. 기성 문단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작가군으로 부상한 전후세대 작가들은 50년대 소설 부활에 큰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이후의 소설 형성에도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소설에서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는 전후문학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주요하게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연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후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허무주의, 퇴폐주의 혹은 병리성과 같은 부정적 측면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전쟁은 현존성을 위협하는 최대의 원인이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아픔과 현실의 절망에서 비롯되는 요소들을 소설 곳곳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시대성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작품 분석에 앞서 편협하고 고정적인 시선이 우선시 된다면 이는 작품을 향하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후 작가의 작품에서 전쟁의 상처와 거대한 심리적 충격은 소설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황폐한 현실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비극과 삶에 대한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직시, 비판 의식을 자극하여 진정한 삶의 본질,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과 함께 현실에의 적극적 저항이라는 양면을 드러내는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위 ‘무(無)’의 문학으로 명명되는 기존의 전후문학 논의에서 탈피, 전후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와 주요작품들을 중심으로 전후문학에 드러나는 전복적, 저항적 측면들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전후문학을 향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서기원, 손창섭, 송병수 세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고 각기 다르게 드러나는 여러 저항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主體, ‘되기’를 향하는 ‘이기’의 존재 - 서기원론

1. 존재‘이기’: 배설(排泄)을 통한 자기 확인

무너짐과 폐허로서의 현실에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기원 작품을 향한

1) 김윤식, 김우중 외 34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2, p.364.

시선의 대부분은 ‘내일’을 거세하는 무기력하고 병리적인 인물이라는 지극히 도덕적 수준에서의 평가에서 그치고 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내일’은 너무도 불명확하고 멀기만한 신기루와 같은 불안한 존재이기에 차마 ‘꿈꿀 수 없는’ 사치에 가깝다. 편협한 도덕성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서기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오류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죽음을 꺼안고 사는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이상적인 정답(正答)’을 찾는 일이 될 수 없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방향성마저 잃어버린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기제는 다름 아닌 자신의 생존, 즉 ‘지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일 것이다. 죽음을 참고 견디 ‘지금’을 지켜내는 존재‘이기’가 일차적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작가 서기원은 배설(排泄)²⁾을 통한 자기 확인을 제시한다. ‘나’라는 존재가 ‘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작동하는 몸의 결과물인 배설을 통해서이다.

나는 벌써 나흘째 갈지 못한 손수건을 꼬집어내어 코와 입을 막았다. 땀과 때기름이 쉬어터진 냄새가 사뭇 친밀하게 나 자신의 체취를 깨닫게 했다.

이 냄새만은 분명히 내 것이다. 그것은 내가 눈 똥이 남의 것보다 덜 구리다는 자애심에서라기보다 이 내 피부가 따갑도록 강렬한 냄새야말로 바로 짐승의 삶을 깨우쳐주었기 때문이다. (...)

선 땀냄새 대신에 아린 매연이 콧구멍 속과 목젖을 쏘았다. 광물질의 날카롭고 차디찬 냄새였다. 땀과 때기름이 섞인, 짐짓 내 치부(恥部)에서 풍길 성싶은 자기혐오와 아득한 향수가 얽힌 손수건의 냄새와는 몹시도 대조되고 이질적인 것이다. - 「이 성숙한 밤의 포옹」(1960) p.33

「이 성숙한 밤의 포옹」에서 ‘나’는 애인인 상희가 폐병으로 위독하다 소식을 듣고 탈영을 감행한다. 전장(戰場)에서의 끔찍한 기억과 차가운 도시의 무관심, 불안한 나날 속에서 “분명히 내 것”인 것은 “광물질의 날카롭고 차디찬 냄새”와 대비를 이루는, 땀과 때기름이 쉬어터진 나의 체취뿐이다. 반항할 대상조차 없다고 말하는 또다른 인물 선구의 유일한 “저항”은 병에 “오줌”을 배설하는 행위이다.

믿을 수 있는 가치들은 물론 마음껏 힐난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인간 존재의 근거를 상실’³⁾한 채 발 디딜 곳 없이 혼란스러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차적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강렬한 확신이다. 차선책이나 더 나은 선택을 생각할 여유도 갖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배설(排泄)은 ‘나’ 자신이 ‘여기’에 ‘지금’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증명에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길인 것이다. 비록 “등 뒤로 바짝 죽음”과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밀착되어 있기에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창녀의 유방과 뱃가죽, 탄탄한 허벅지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숨결”⁴⁾에 매달리게 되는 절박함이 있음이다.

2) 그로테스크한 몸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생성(生成)하는 몸이다. 이러한 몸은 결코 완성되거나 종결되지 않는다. 이 몸은 언제나 세워지고, 만들어지며, 스스로 다른 몸을 세우고 만드는 것이다. (...) 그로테스크한 몸의 삶에서 기본적인 사건들은, 육체적 드라마의 행위들이다. 즉, 먹기, 마시기, 배설(그밖에 다른 구분으로는 발한, 코풀기, 재채기 등이 있다), 성교, 임신, 출산, 성장, 노화, 질환, 죽음, 찢기, 조각조각 나눠기, 다른 몸에게 먹히기 등인 것이다. 이들은 몸과 세계의 경계나, 새로운 몸과 낡은 몸들 사이의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 미하일 바흐친,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p.493

3) 성민엽, 「역사에서의 환멸과 풍자」, 『서기원 대표중단편선집』, 책세상, 1994, p.328

4) 창녀의 형클어진 머리에선 여전히 싸구려 향수 냄새가 그치지 않았고, 워낙 이 지나 총명과는 거리가 먼 콧구멍 속에선 불결스런 털이 숨을 내쉴 때마다 벌름거렸다. 그녀의 유방은 역센 생활력을 상징하고 있었다. 창녀는 등뒤로 바짝 죽음과 밀착되어 있었지만, 개기름이 흐르는 뱃가죽이며 탄탄한 허벅지에서는 생명의 숨결이

서기원 소설에서는 사창가를 배회하는 인물들,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나 육체적 결합에의 강한 욕구를 표출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와 같이 강한 성욕(性慾) 역시 단순히 비윤리적이고 패배적인 태도로 단정 짓기 이전에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자기 존재‘이기’를 증명하는 ‘슬픈’ 배설 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석희는 열기 띤 얼굴을 푹 숙이고 비척비척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네의 뒷모습에서 처음으로 그네의 육체를 명백히 갈망했다. 거세당했던 내 몸뚱이는 별안간 불이 붙기 시작했다.
(...)

나는 석희의 방문을 열고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아랫목으로 희끄무레한 이부자리가 보일 뿐 그네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희끄무레한 이부자리를 대중삼아 방안을 기어갔다. 그리고 그네의 이마를 더듬었다.
- 「달빛과 기아」(1959) p.274-275

「달빛과 기아」에서 ‘나’는 인민군들의 눈을 피해 예전에 자신이 버렸던 애인이자 여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희를 찾아간다. 전국을 예측할 지식도, 국련군이 서울을 탈환하리라는 굳은 신념도 없는 나는 외부와 두절되어 밤마다 총소리를 들어야 했다. 자신의 몸에 총탄이 들어가거나 꿰뚫어 죽는 상상을 하면서 ‘나’는 석희를 향한 욕망을 느끼는 것이다. 성적(性的) 욕망은 생명 그 자체를 가장 직접적이고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배설 행위이자 인간의 육체가 지니는 근원적 욕구이다. 특히 죽음이나 허무와 같이 존재 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성욕을 드러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야제(前夜祭)」(1962)에서 인민군의 포로가 된 성호가 탈출을 감행하는 이유 역시 “여자를 알기 전에는, 그 부드러운 살결에 내 살을 밀착시키기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⁵⁾ 신념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들의 인생에서는 분명 “짐승의 삶”이 지닌 특유의 내음새가 난다. 하지만 이를 인간의 그것보다 비천한 것으로 폄하하여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살아있음’으로서의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던 현실에서 생명에의 강한 욕구를 통해 존재‘이기’를 끊임없이 증명하고자 했던 치열함의 증거이기 때문이다.⁶⁾

천여 명의 동족들이 아무 까닭없이 학살을 당하는 이 마당에 하기가 보통할 우연일망정 한몫 끼여 있다는 자각은 모두가 고스란히 죽어가는데, 홀로 살아남는다는 가정(假定)이 결코 저질러서는 아니될 무시무시한 최악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 「안락사론」(1956) p.21

작가는 더 나아가 육체적 배설에서 정신적 배설인 고백 행위를 통해 살아‘있음’을 옹호한다. 서기원 소설 속 주인공들의 자기학대와 자기모멸 대부분은 죄의식에서 비롯되는데 그만큼 그의 작품에서 ‘죄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특하다. 전쟁에서는 ‘생존’만이 하나의 논리가 되며 이는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죽이고 오로지 자신만이 살아있다는 사

넘쳐흐르는 것이었다. - 서기원, 「이 성숙한 밤의 포옹」, 『서기원 대표중단편선집』, 책세상, 1994, p.41

5) 굶주림과 추위에 곧비해버린 성호의 몸뚱이 속을 날카로운 전율이 바늘처럼 꿰뚫고 내려갔다. 그는 자기가 여지껏 여자를 모르는 상태임을 약간의 수치심과 꺼림칙한 느낌으로 새삼스럽게 되짚어 보았다.

여자를 알기 전에는, 그 부드러운 살결에 내 살을 밀착시키기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된다고 성호는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의 움적일 수 없는 신념처럼 무거운 덩어리를 그의 가슴팍에 안겨주었다.

- 서기원, 「전야제(前夜祭)」 『서기원 대표중단편선집』, 책세상, 1994, p.276

6)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가시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느끼는 것’(se sentire)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여기서 느낌은 단순한 경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힘과 관련된다. 드러내는 것의 배후에는 고유한 신체가 있다. 양리는 존재를 사실상 신체자체와 동일시한다. 신체는 모든 현상적인 ‘나타남’의 배후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내용물이다. - 김석, 「육화된 코기토와 새로운 주체화」, 철학과 현상학 연구, 2007, p.73

실에 몸서리친다. 「안락사론」에서 보이듯이 죄의식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살아있음’ 그 자체를 하나의 ‘죄’로 만드는 아이러니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삶은 물론 자기 존재마저 위태롭게 하는 죄의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정신적 배설을 향한다.

나는 이제 그 사실들을 고백함으로써 마음의 울적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털어 버리는 동시에, 이상심리(異常心理)의 소유자처럼 한가지 집념에 붙들리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캐어보는 것으로 혹시 어떤 치료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 계산(計算)인 것이다. - 「살생」(1956) p.56

“아버지, 형을 죽인 건 접니다.”

나는 한마디 한마디 떼어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힘없이 건드렸다. (...)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으나 속으로부터 치받쳐오르는 흐느낌을 끝내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흐느낌은 때마침 울려나온 찬송가 소리 때문에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 「박명기」(1961) p.184

위 작품은 “고백함으로써 마음의 울적한 부담”을 털어내고 “어떤 치료의 효과”를 보고자 자신의 살생(殺生)한 과거를 밝힌다며 서두를 이끌고 있다.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은 「박명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실명이 반동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친형을 총검으로 찌른 과거에 대한 “숙명과 같은 귀결이며 하나의 구원”⁷⁾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형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작품은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형을 죽인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흐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을 마지막에 배치해 놓는다.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할렐루야” 라는 찬송가 소리의 등장 또한 고백을 통한 자기 용서와 치유를 상징하는 작가의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백의 과정은 숨겨놓을 수밖에 없던 괴로운 사실들을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스스로를 향하는 분노와 혐오를 자기반성의 시간으로 돌려놓는다. 아픔과 슬픔, 고통을 토해내는 배설 행위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서기원은 “모든 것이 붕괴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⁸⁾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생물이 행하는 가장 하등(下等)한 행위라 일컬어지는 배설을 역으로 이용한다. 육체적, 정신적 배설을 통한 존재‘이기’는 유일한 존재의 탈출구가 배설뿐인 현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한편, ‘그래도’ 그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생명, 즉 살아있는 상태인 ‘be’에 대한 작가의 긍정인 셈이다.

2. 존재‘되기’: ‘과정(~ing)’으로서의 가능성

다음으로 ‘이기’에서 그치지 않고 ‘되기’, ‘becoming’의 차원에서 인간을 논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서기원의 작품들은 흥미롭다 하겠다. 하지만 ‘되기’의 과정들이 완료형이 아닌, 진행

7) 어쩌면 나는 그것이 숙명과 같은 귀결이며 하나의 구원일 수 있다는 묘한 자기 위안을 저버릴 수 없었던 성실다. 나는 필경 병신이 됴으로써 비로소 형의 육신을 총검으로 찌른 동작과 손목에 반사된 총격이 서로 상쇄될 수 있을 것 같은 발상에 매혹된 것이다.

천만에, 그건 큰 오산이었지. 내 귀, 코, 그리고 손가락끝은 곤충의 신경처럼 차라리 변태스럽게 예민해질 뿐이었다. 그러한 곤충의 촉각은 눈을 감고 형을 찌른 어느 청년의 동작을 좀더 생생하게 되살릴 수가 있었다.

- 서기원, 「박명기(薄明期)」, 『서기원 대표중단편집』, 책세상, 1994, p.177

8) 생명에의 원시적인 집착—, 그것은 내가 의식의 구조물 탐색과 동시에 작품 속에서 갖는 집착인데, (중략) 그 말이 모든 것이 붕괴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이다. 그 가치만은 불변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 서기원, 「전후과, 그의 변신」, 대표작 자선자평(대담취재), 『문학사상』, 1974.3, p.222

형(~ing)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여기’와는 다른 안정적이고 행복한 ‘저기’에 대한 설부른 기대와 확언(確言) 대신, 서기원은 아무 것도 없는 현실에 대한 인정과 직시(直視)를 토대로 한 ‘한 발자국’ 나아감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다.

“상희야, 너한테 가서 내가 지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 너의 뚫어진 허파에서 마지막 핏덩이가 쏟아져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얘기해 주마.”

음식점과 창가가 꼭 들어찬 이 거대한 도시 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햇바닥으로 빗방울을 받아마셔가며 걸음걸이를 재촉하는 것이었다.

- 「이 성숙한 밤의 포옹」(1960) p.55

작품의 열린 결말들이 이를 증명하는데 「이 성숙한 밤의 포옹」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상희에게 “내가 지닌 모든 것을 털어 놓기” 위해 휘청거리는 발로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빗속에서 걸음걸이를 재촉한다. 상희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존재한다고 해도 상희는 폐병을 앓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 ‘나’가 상희를 만났을 수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피난길에 버려진 노인을 업고 뛰는 병렬의 모습으로 끝맺는 「오늘과 내일」(1959)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군 전투 정보 기관인 조오 부대 소속 병렬은 D읍에서 자식에게 버려진 노인을 만난다. 노인을 버려두자는 한균을 죽이면서까지 병렬은 노인과 함께 탈출을 시도한다. “쇠붙이처럼 무거워진 노인의 몸뚱이를 선뜻 길바닥에 내던지기만 하면” 적병의 추적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음에도 병렬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둘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는지는 미지수이다. 병렬의 컷가에 “총알의 예리한 과열음”이 들릴 뿐이다. 이처럼 작가가 요구하는 ‘되기’는 어떤 것에 대한 뚜렷한 발견과 확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無)’인 현실을 절감하고, 그 후에 비로소 가능한 ‘부딪힘’으로 몸부림치는 진행 과정 자체에 진정한 ‘되기’의 의미가 실려 있다는 것이다.

“내 것이란 생각뿐이에요. 거야 틀림없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애 아버지겠죠. 허지만 그건 두분이 다 애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확실한 건 내 것이란 것뿐이거든요. 당신들엔 아무 권리가 없어요” 하는 윤주의 어감 속에는 상식이나 논리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무서운 집념이 도사려 앉은 것을 느끼며 힘없이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다.

- 「암사지도」(1956) p.31

다음을 이으려고 연필을 세웠을 때 무엇이 뱃속에서 움찔했다. 다음 순간 뱃가죽 안에서 밖으로 치받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처음인 경험이였다. 그녀는 발작하듯 몸을 뒤틀어 모로 돌렸다. (...)

그러나 아이는 뱃속에서 발길로 나를 건어챘다. 고놈은 틀림없이 발길로 내 뱃가죽을 건어챘다. 가는 막대기 같은 것이 분명 머리통은 아닐 거야…….

- 「잉태기」(1959) p.333

「암사지도」와 「잉태기」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갖게 된 윤주와 승숙도 ‘되기’의 차원에서 읽어낼 수 있다. 정확한 토대와 근원(아버지)을 알 수 없는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있다. 윤주는 아이를 계기로 “굿바이! 신사 여러분들!”을 외치며 암사지도와 같은 집을 떠나고, 모든 것에 환멸을 느껴 철훈인지 도섭의 아이인지 모를 아이를 지우고 자살을 하려는 승숙은 “뱃속에서 움찔”하는 움직임 느끼고는 “기도하는 몸매로” 울게 된다. 실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하나의 출발의 과정과 시도 속에서 존재는 ‘오늘’의 ‘이기’에서 벗어나 ‘내일’의 ‘되기’로의 도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작가는 스스로 “전후소설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전후 세대의 허무와 절망에 대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의 인식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질서를 갈구하여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⁹⁾라고 말한다. 완벽한 이상향(理想郷) 대신 작가 서기원은 힘겨운 과정(~ing)으로서의 몸부림을 선택한다. 이는 부정적이고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견이나

현실에의 좌절이 결코 아니다. ‘가장 끔찍한 악은 희망’이라던 카뮈의 말대로 근거 없는 희망이 현실 회피를 위한 허울 좋은 구실이 되거나 혹은 더 큰 절망감으로 다가올 것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다. 현실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인식하며, 비록 무너짐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바로 그 현실 안에서 모든 것을 몸으로 겪으며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힘임을 서기원은 말하고 있음이다. 마치 알의 바깥(外)이 아닌 안(內)에서부터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하는 부화(孵化)의 진리처럼 말이다.

서기원의 소설들은 가감(加減)이 없다. 과장스러운 묘사 없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침착하지만 날카롭고, 생생하면서 강렬하게 전후 현실을 그려내는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야 했던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서기원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낙관론을 펼쳐 보이거나 ~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고리타분한 계몽주의와 도덕성을 손쉽게 강요하지도 않는데 바로 선불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직시(直視)에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는 차선책으로 모든 것에 등을 돌린 채 잿빛 내면과 우울에의 침잠을 선택하지 않는다. 대신, 폐허가 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인간들의 과도기적 갈등과 존재론적 방향을 수용하며 과정으로서의 몸부림, 부딪힘의 ‘사실적’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III. 他者: ‘앓음’으로 저항하는 존재 - 손창섭론

1. ‘버림’받기, 혹은 ‘탈주’하기: ‘병’으로서 존재하기

손창섭의 초기 작품을 구성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파괴된 인간상- 불구자 이거나 환자, 의지박약자들이라는 것이다. 「사연기」(『문예』 53.6)의 성규와 「생활적」(『현대공론』 54.11)의 순이는 폐병을 앓고 있고, 「죄없는 형벌」(『여원』 58.4)의 혜순은 나병환자이다. 「인간동물원초」(『문학예술』 55.8)에서의 주사장은 임질을, 「혈서」(『현대문학』 55.1)의 창애는 간질병을 「미해결 장」(『현대문학』 55.6)의 문선생은 만성위궤양을 앓고 있다. 이렇듯 외견상 뚜렷하게 드러나는 육신을 병을 앓고 있는 인물뿐 만 아니라, 「비오는 날」(『문예』 53.11)의 동옥이나, 「혈서」의 준석처럼 신체적으로 불구인 인물, 그리고 정신면에서 이상적 이후를 내보이는 인물들까지 - 그의 소설에서는 정상적인 인간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일탈된 인간 이하의 존재들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인물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나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또는 과도하게 움직인다. 이와 같은 부동不動과 요동搖動의 극한적 표출은 주인공이 직면하는 소외와 고립, 폭력과 상처에 대한 반항적 몸짓으로, 전후의 참담했던 현실에 대한 상징적 대응으로 여겨진다.⁹⁾ 손창섭의 초기 소설에서 잘 드러나는 이러한 부정적 인간상은 그의 작품이 패배와 좌절로 점철된 허무주의 작품이라는 평가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에게 ‘소외’는 단순히 낙오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병자’로서의 인물들은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 그리고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인 관념을 동요시킨다. 이들은 사회가 규정하는 인간적인 특성들이 말소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며 ‘동물적인 몸’의 차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창섭 소설에서 드러나는 결핵 등의 질병은 유럽문학에서 흔히 드러나는 불우한 천재들이 가슴을 움켜

9) 서기원, 『한국현대문학전집 35』, 삼성출판사, 1978

10) 양현진, 「손창섭 소설의 환상적 타자성 연구」 『현대소설연구33』 p.152

잡는 낭만적인 모습¹¹⁾이 아닌, 타자를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이들의 사회적 인간적 존재를 무화시키는- 위협적이고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¹²⁾

「생활적」, 「사연기」에서 결핵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벼운 열이 지속되며 서서히 기운이 쇠하고 뺨은 상기된 채 광대뼈가 솟아나고 눈이 산송장의 모습이 되어가는¹³⁾” 상태로 몰아넣는다. 일반적인 결핵 환자의 모습을 보다 더 기이하고 흉물스러운 육체로서 ‘비인간화’하며 그 세부를 노출하는 것이다. 「사연기」에서 폐결핵환자인 성규는 “먼지와 끄림과 과리똥을 까맣게 찼은” “우중충한 동굴” 같은 단칸방에서 송장과 다름없이 살고 있으며 성규에 대한 육체적 묘사는 인간으로서 신체적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왜곡되고 비속한 이미지로 나타난다.¹⁴⁾

편포와 같이 엷어진 흉곽과 거미의 발을 생각해 하는 가늘고 길어만 보이는 사지랑, 생기 없는 전신에 비하면 이상하게도 그 눈만은 낭랑히 빛났다, (...) 성한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귀기가 서린 눈이었기 때문이다. (...) 뼈와 가죽만이 남았기 때문에 그 가죽을 찢고 뼈를 갈아내지는 않는 이상 더 야윌 여지가 없을 것이다. (...) 해골을 또 다시 보는 것 같았다. (...) 팔 다리의 관절 사이가 이상하게 길어만 보였다. 그러한 성규를 보고 있노라면 동식은 자꾸 거미가 연상되었다. (...) 그렇게 뼈와 가죽만이 붙어 있는 몸에 <심령>이 들어 있는 것이 동식에게는 기적같이 여겨졌다. (...) 말라붙은 지렁이처럼 배배꼬인 팔을 한쪽 손으로 주물러 보며 (...)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로 갈비뼈만 앙상한 그 가슴이 겨우 알아볼 정도로 할딱 할딱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 「사연기」 p.56-57¹⁵⁾

“귀기”, “해골”, “거미”, “지렁이”등으로 묘사된 성규의 육체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육체이다. 또한 “심령이 들어 있는 것”이 “기적같이” 여겨지는 점에서 정신성의 구현을 넘어선 물질적 육체를 드러낸다. 나아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가 “할딱이는 가슴”에 집약되듯이 이 육체는 생물학적 삶과 죽음에 경계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

손창섭 소설에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전후라는 예외상태에서 질병/불구의 몸은 ‘살 가치 없는 생명’이 된다. 아감벤에 따르면 “무가치한 생명이라는 개념은 무엇보다 질병이나 사고로 불치라고 간주된 사람들, 즉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건 아니면 예컨대 중풍환자들처럼 -말년에 그리 되었던 건 여하튼 불치의 정식박약자들의 경우이다.”¹⁶⁾ 전후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현실/삶의 호명에 응할 수 없는 이들은 상징계 밖의 타자들로 밀려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의지와 무관한 이 질병/불구는 버림받기이자 동시에 곧 폭력적인 현실의 주체로부터 탈주하기 된다. 이들의 욕망이 무엇이든 이들은 “타자” 즉 배제와 소외 속에서만 존재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결핍에서 벗어나 현실적 질서에 안착하여 정상적인 삶을

11) 수잔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에 따르면 결핵은 상당히 낭만적화 되어 나타난다. 결핵을 앓는 사람들은 살아남기에 충분할 만큼 삶에 애착을 지니지 않는 민감하고 수동적인 사람들의 질병으로 찬미되곤 한다. (...) 결핵에 걸렸다는 것은 품위 있고, 우아하고, 섬세하다는 지표였다.(...). 결핵 환자 같은 용모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연약함이나 뛰어난 감수성의 상징이 되어가자 이런 용모는 점차 여성이 갖추어할 이상적인 용모가 되어갔다. (...) 실제로도 사람들은 결핵으로 죽어가는 젊은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했다. -수잔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역) 2002.

12) 20세기 초반 낭만적인 모습으로 가슴을 움켜잡게 하는 결핵이라는 병은 불운한 천재의 전유물이기도 한 반면, 그 병을 앓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대중에게는 위협적이기도 한 존재였다. -자크 르 고프 · 장 샤를 수아, 『고통받는 몸의 역사』, 지호, 2001. p.98

13) 자크 르 고프 · 장 샤를 수아, 같은 책 p.98

14) 이부순, 『한국 전후소설과 전도적 상상력』, 새미, 2005 p.96-108

15) 손창섭 『손창섭 단편소설 전집』 1,2, 가람기획, 2005. 이하 같은 책

16)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p.266

살고자 하는 「혈서」의 준석과 달수, 「유실몽」의 상근이든 현실의 질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미해결의 장」의 철수나 「혈서」의 준석이든 이들은 불완전한 정신 혹은 육체로 이데올로기의 호명 혹은 (주체의 시선을 반영한) 자신의 욕망조차 위반한다.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자기 균열적 인물들은 그 자체로 단일한 통일적 정체성의 신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재와 소외 -‘타자’로 전락함으로써 저항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2. 타자-‘되기’: 앓음으로서 저항하기

전쟁과 세균은 모두 파괴라는 속성을 공유한다.¹⁷⁾ 이들의 앓음은 파괴의 결과이자 또 다른 파괴의 시작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병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앓는다. 상계계로의 편입을 향한 모색보다는 이들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질병을 드러내며 앓는 반복적인 행위들이다. 기계적/강박적으로 되풀이 되는 행위들은 자기 소멸의 욕망도, 현실에 대한 정상적인 저항-극복의 의지도 살펴볼 수 없다.¹⁸⁾

그래도 그는 날마다 닥치는 대로 회사고, 음식점이고, 서점이고, 시계방이고 그러한 구별없이 십여군데 내지는 이십여군데나 찾아들어가 보는 것이었다.

물론 요즘 와서는 손톱만한 희망도 거는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찾아다니며 중얼거리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나는 법과 대학생인데 고학생입니다. 학비와 식비만 당해 준다면 무슨 일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두루 쳐다보는 것이었다. 달수는 취직하기 위해서 그 이상 어떤 수단도 방법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 「혈서」 p.186

동주는 그런 듯이 누워 있었다 훈기에 배어드는 지린내와 구린내를 어쩔 수 없듯이, 젖은 옷처럼 전신에 무겁게 감겨드는 어둠을 동주는 참고 견디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 「생활적」 p. 90

순이는 진종일 누운채 그 무겁고 단조로운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이 일어났다. ‘으응 으응 으응’(…)밤낮 없이 누워서 신음 소리만 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신음 소리를 내기 위해 장치한 기계와도 같았다. 동주는 종내 어느 날 순이에게 물어보았다. “너 어째서 그렇게 밤낮 신음 소리를 지르니? 그렇게 죽어오게 아프냐?” 순이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은 심심해서 못 견디겠는 걸.” 그때부터 동주는 무겁고 암담한 순이의 신음소리를 아껴주기로 한 것이다. 그 신음 소리는 머지않아 죽을지 모르는 순이가 최선을 다한 생활이었기 때문이다. - 「생활적」 p.94-95

이들은 목적이나 희망을 찾아 정상적인 삶, 이데올로기 내의 생명가치를 획득하는 대신에 끈질기게 무가치한 생명 (혹은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견디는 쪽에 머물러 있다. 달수의 취직행위는 생산성 없는 강박행위일 뿐이고 동주는 부정적인 현실을 그저 “참고 견디며” 버틸 뿐이다. 이들에게 진정한 ‘생존’의 의미는 앓는 행위를 통해 드러날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앓음으로서 견디기”의 존재 방식은 생존의 비속성과 무의미성을 드러내며 기존의 가치체제를 무화시키는 위험한 “타자”가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신성하지도 인간적이지도 못한 육체를 통해 완벽한 폭력의 대상, 절대적인 살해가능성으로 현실의 잔혹함과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정상적인’ 사회의 부조리함

17) 최성실, 『근대, 다중의 나선』, 소명출판, 2004, p151

18)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에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에 관한 글을 보면, “이자들은 살 의지도 죽을 의지도 없다. 한편으로 죽고 싶다는 어떤 확인 가능한 동의도 표시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극복해야하는 생명에 대한 의지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목적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로 표현되고 있다.- 조르조 아감벤, 같은 책 p.268

을 보여준다.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은 언제나 이데올로기가 호명하는 삶의 불안정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며 상징적인 타자로 남아 병을 “걸리게” 만드는 현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 침윤하는 대신 모든 가치체계를 의문에 빠뜨리며 거부한다. 순이의 죽음, 그리고 성규의 결핵을 통해서 비로소 생존/삶을 생각하는 동주와 동식의 태도는 이것을 잘 드러낸다. “생의 어느 구석에 조금이라도 향락할 수 있는 대견한 요소”가 있는지는 되묻던 동식은 자신의 입에 “검붉은 피를 막 퍼먹이는” 성규의 행위를 통해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의식한다.¹⁹⁾ 지극히 동물적이고 비속한 타자의 삶/ 타자-되기만이 부정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생존을 향한 저항이 되는 것이다.

손창섭은 시대적 부조리와 절망적 현실에 대한 저항의 키워드를 훼손되고 망가진 타자에서 찾는다. 여기서 타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이 아닌, 피와 살로 이루어진 동물적 인간이다.²⁰⁾ 이들의 질병/불구는 정상적인 육체(세계)를 침투하고 비속하게 전락시키며 인간/동물, 삶/죽음, 안/밖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양자를 혼종하고 착종한다. 이들은 삶에 대한 기대와 죽음에 대한 희망이라는 정상적이고 고전적인 상징계로의 편입 대신 앓음으로서 무가치한 생명을 이어나감으로써 기존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것이다.

IV. 連帶: 유대와 소통을 통한 상처 회복 - 손병수론

『쏘리 킴』²¹⁾은 주한 미군 주둔기지 근처에서 살아가는 쏘리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쏘리가 ‘양키부대 캠프’²²⁾에서 하는 일은 양키들을 따링 누나에게 붙여주고 돈을 받는 일이다. 쏘리가 원하는 것은 ‘양키들에게 양갈보나 붙여 주고 그럭저럭 얼려 지내다가 딱부리처럼 하우스보이’²³⁾가 되어 팔자를 고치는 것이다.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과 함께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미군은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자이며 선구자적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래서 쏘리도 서울에서 국군 부대 근처를 배회하거나 앵벌이를 해서 살아가던 때보다 미군 주변에서 살고 있는 현재가 더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이다.

검문소의 옴피 같은 깡쟁이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키라면 한국 사람들보다 모두 좋았다. 그렇다고 뭐 먹다 남은 닭다리나 초콜릿 부스러기 따위를 얻어먹는 맛에서가 아니다. 양키들이 어른답잖게 말발굽쇠던지기랑 화약터치기랑 어떤 놀이든(돈내기 포커 노름만 말고) 버젓이 한 몫 붙여 주는 게 좋단 말이다. 어떤 땐 슬며시 으스한 데에 불러다가 사타구니를 까내 놓고 그

19) 성규는 동식의 앓는 자리에 까지 몹시 신경을 썼다. 자기 곁으로 다가왔지 않고 윗목에 떨어져 자리를 잡기라도 할양이면 성규는 그 야윈 얼굴을 찡그리며, 병독이 있는 자기의 호흡을 꺼리기 때문이 아니냐고 그럴 거라고, 나는 멀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네야 이제부터 생을 향락해보려는 야심가니까 응당 나같은 병독체가 무섭고 싫지만 할 것이라고, 고개를 노적스레 주억거리는 것이었다. 생이 향락하다니? 생의 어느 구석에 조금이라도 향락할 수 있는 대견한 요소가 있단 말인가? - 「사연기」 p.53
아무리 요동을 해도 바위 같은 중량으로 자기를 타고 앓은 성규는 꿈쩍도 안할 뿐만 아니라 검붉은 피를 토해서 동식의 입에다 막 퍼먹이는 것이다. - 「사연기」 p.68

20) 소위 배꼽 아래의 철학을 말하는 로렌스는 “본능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가장 본원적인 속성”임을 지적하며 “내 종교는 지성보다는 훨씬 현명한 것으로 피를 신임한다는 것, 육체를 신임” 한다고 지적한다. - 최성실 같은 책 p.148~177

21) 1957년 《문학예술》 신인 특집에 당선.

22) 「쏘리 킴」, 「한국소설문학대계」 38, p11. (이하 같은 책)

23) 「쏘리 킴」, p12.

것을 주물러 달라거나 흔들어 달라고 징글맞게 놀 때도 있지만, 그 장난만 맡곤 양키들이 노는 장난은 뭣이고 다 신나는 것뿐이다. - 「쏘리 킴」, p12.

그러나 이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전쟁 후 폐허의 현실에서 가치관 형성의 기반이 되는 배움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아이들의 전형이 '쏘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쏘리는 미군들과 어울리면서 어른 행세를 하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린이 노래만큼은 꼭 따라 부르는 아이일 뿐이다. 쏘리 뿐 아니라 짚뚝이, 딱부리처럼 어린 아이들이 미군부대 주변에서 미군의 잔심부름을 하고, 미군에게 여자를 알선해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쟁 후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군에게 붙어 기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비극적인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쏘리 킴』에서 형상화 하고 있는 전후 공간에서의 또 다른 인물의 전형은 따링 누나이다. 쏘리와 함께 미군부대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몸을 팔아 돈을 벌어 생활비를 마련한다. 따링 누나와 같은 여자들이 전쟁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소년들은 쏘리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살았다면, 소녀들 혹은 여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파는 일에 쉽게 유혹될 수밖에 없었다.

입술에 칠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은 걸 보아 오늘은 양키를 받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어쩌면 양키한테 잘 읊는다든가 국제 무어라던가하는 못된 병에 또 걸렸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거 큰 걱정이다. 몇 달 전에도 이 모양이더니 병을 고친다든가 뭐 뱃속의 애를 뚫는다든가 하고 혼자 서울에 간 일이 있었다. 보름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처럼 애가 탄 일은 없었다. - 「쏘리 킴」, p25.

따링 누나의 몸은 만신창이였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린 아이인 쏘리의 시선으로 보여 지는 따링 누나의 삶은 객관화되어 비극성이 더 고조되어 나타난다.

『쏘리 킴』이 전쟁 후 어린이들과 여자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장인』²⁴⁾은 전쟁에 참전했던 화가의 전후 공허해진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쟁 전에 촉망받던 미술가 민은 전장에서 돌아온 후 옛날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살고자 하는 의의마저 상실해버렸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었다. 이불 속에 처박혀 마냥 권태로운 느낌이였다. 권태, 총족의 과잉에서 오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장인」, p51.

살아 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공허한 상태인 남편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아내는 노력한다. 전장에서 겪었던 육체적 고통과 사람을 죽였을 지도 모를 자신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술을 권하기도 했으며, 남편이 열정을 바쳤던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남편 민이 계속 멍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 본연의 모습에 대한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다.

민을 제외 한 다른 사람들은 전후 남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거나,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등 전후 공간에서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을 획득했다. 과부가 된 옛 은사의 부인도 자신과 함께 울어줄 남자를 찾아 외로움을 일시적으로나마 극복해가고 있다. 그러나 민은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전후 공간에서 부적응자로 남아 있다. 같이 그림

24) 1960년 《현대문학》에 발표.

공부를 하던 동무를 만나거나 전장에서 함께 싸우던 동지를 만나도 민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쟁은 사람의 의식을 공허하고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전쟁을 보여 민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파괴시켜 버리는 폭력성이 내재된 전쟁은 『장인』의 주인공 민의 정신을 공허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민이지만, 식모할멈 딸의 ‘궁둥이’를 보고 무언가 꿈틀함을 느낀다. 민은 처음에는 타원의 궁둥이를 보고 염치 사나운 욕정의 도발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민이 꿈틀함을 느끼게 된 이유는 궁둥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타원’의 모양이었기 때문이다. 타원은 아무개 화가가 말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공백을 머금은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끌어당기는 함인력을 지닌다. 안정적인 존재로서의 타원은 생명을 포함한 존재가 아니다. 불안정함,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역동성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서의 타원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의 민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육체적 자유까지 통제받는 군인으로서 전쟁을 체험하고 돌아온 민은 삶의 의지,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타원으로서의 민의 정체성은 완전히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으로 숨어버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폐한 현실에서도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타원을 마주했을 때, 무의식에 감춰진 민의 타원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타원도의 공백을 채우는 것, 그것은 살아 있는 인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전후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인간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비극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정신, 문화, 등과 같은 것들은 모두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을 지닌 인간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가 확실히 존재함을 증명하는 신체가 있는 한 전쟁으로 인한 허무와 피폐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은 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기까지 그를 기다려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 스스로는 그들이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민의 가족들은 그를 기다렸고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쏘리 킴』에서 쏘리와 따링 누나는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친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전후 상황에서 쏘리와 따링 누나는 친남매처럼 의지하며 살아간다. 쏘리는 벌어진 돈을 모두 따링 누나에게 맡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현실임에도 서로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히 자식 때문에 따링 누나만 보기가 안됐다. (...중략...) 그러다가 그 자리에 펍 엮드려 흐느껴 우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따링 누나가 이렇게 화를 낸 일도 없었고, 이렇게 우는 것도 처음 봤다. 쏘리는 그저 맥도 없이 슬프기만 했다.
 “누나야 …… 잘못했어, 다신 안 그렇게, 우지 마야.”
 하면서 얼굴에 같이 쓰러져 울고 말았다. 뭣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저도 모르지만 그저 이렇게 같이 우어야만 될 것 같아서였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
 “애야, 우지 마,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잉 ……우리 이젠 서울 가서 나하고 나하고 돌이만 살자잉…….” - 『쏘리 킴』, p23-24.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쏘리와 따링 누나는 가족적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유대감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돈을 벌어서 둘이 함께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힘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검문에 걸려 따링 누나가 잡혀 가면서도 쏘리를 걱정하여 돈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나중에 만날 약속을 한다. 쏘리와 따링 누나는 헤어졌지만 피보다 진한 유대감은 비극적 전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 줄 것이다.

이젠 이곳 양키부대도 싫다. 아니, 무섭다. 생각해 보면 양키들도 무섭다. 복독 같은 놈은 왕초보다 더 무섭고, 엠피는 교통순경보다 더 밍다. 빨리 이곳을 떠나 우선 서울에 가서 따링 누나를 찾아야겠다. 그 마음 착한 따링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야 까짓 달려 뭉치 따위, 그리고 야광시계도 나일론잠바도 짬뽕 모자도 그따윈 영 없어도 좋다. 그저 따링 누나를 만나 왈각 끌어안고 실컷, 실컷 울어나 보고, 다음에 아무 데고 가서 오래 자리 잡고 '저 산 너머 햇님'을 부르며 마음 놓고 살아 봤으면…… - 「쏘리 킴」, p30.

따링 누나가 잡혀 간 후, 쏘리에게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돈을 벌게 해주는 미군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마음은 이제 두려움으로 변한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겨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왕초,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단속을 멈출 수 없었던 교통경찰들은 모두 한 민족이었으나, 미군은 아니었던 것이다.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한 민족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정신적 공허함을 치유하고 전후 암울한 현실을 함께 재건해나가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전쟁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은 분명 중요한 과정이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생각해본다면, 우리들은 고립되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가족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고 소통하며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인간인 한 피해져버린 전쟁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유대를 형성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극복해내고 살아나가는 과정을 그린 송병수의 소설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V. 나가며

이상에서 본고는 허무주의적 혹은 퇴폐주의로 평가되는 50년대 문학에서 나타난 다양한 저항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후문학은 기존의 평가처럼 전후 피해한 현실을 재현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배설 행위(서기원), 타자로서 앓는 행위(손창섭), 고립되고 소외된 타자사이의 연대(송병수)등을 통해서 당대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후 문학은 쉽게 절망하는 염세주의와 패배주의로 버무려진 부정적인 세계가 아니다. 이들의 허무와 결핍은 현실과의 견고한 긴장을 유지한 채 텍스트가 당위적인 명제로 환원되지 않게 함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의 침윤을 방지하는 미덕을 발휘한다.²⁵⁾ 오히려 전후 현실 속에서 느끼는 딜레마와 존재론적 고민을 전략적으로 담론화하면서 세계의 부조리와 혼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후문학은 지배이데올로기의 “정상성”이 아닌 현실에서 결핍되고 불안정한 “비정상성”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허무와 결핍 속에서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고 극복한 방안을 모색하고 하고 있다.

25) 이정석, 『전후소설 담론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새미, 2005. p65 일부 인용